

시각구조분석을 통한 벽의 구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 회화위주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Walls through Visual Configuration Analyses - Focusing on the Exhibition Space for Paintings -

이 종 숙* 박 종 원**
Lee, Jong-Sook Park, Jong-won

Abstract

The walls of art museums become the background of exhibits, and they form a unit space depending on the size of each exhibit. In addition, the walls are configured and presented depending on the rhythm of space, or the structure of an axi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xis composed for each unit space, the presentation methods of walls were classified as follows: The central type, the skewed type, the crossed type, the one-side corridor type, and the two-way corridor type. By analyzing visual configurations formed by the arrangement of each unit space, the value and the hierarchy of walls are discussed.

To analyze the classified types with the physical change of unit space, the factors of visual integration, connectivity, depth, and visual axis are compared, and various configurations of walls and space change are applied.

키워드 : 미술관, 개구부, 전시벽 구성, 단위공간조합, 공간배열, 축, 시각구조

keywords : Art museum, Opening, Display wall Configuration, Unit space composition, Space arrangement, axis, Visual Configuration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원주의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적 미술관에 도 불구하고 회화전시는 일반적인 전시방법이며 미술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 미술관에서 벽면은 작품의 배경으로 벽과 전시물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회화는 벽에 전시된다. 과거의 다중전시와 살롱전시에서 벽면의 길이와 면적의 양적인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벽은 배경으로서, 가시성과 공간과의 관계의 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작품에 맞는 적절한 벽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이는 벽의 가치와 유의미한 벽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는 것은 활용에 따른 가치와 작품 감상에 있어서 동선은 벽에 대한 관람자의 집중도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 벽은 전시 흐름에 대한 순서와 전개방식에 따른 구성으로서 벽면 위주의 회화전시에 있어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단위공간 조직의 벽은 각각의 물리적 치수를 갖더라도 조합상 벽의 활용과 가치는 다르다. 그러므로 구성상의 벽의 가치와 위계로서 좋은 시각구조를 가지는 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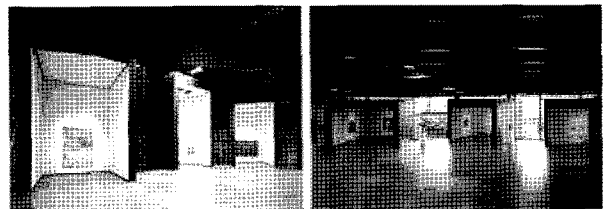


그림 1. 리움 현대미술관 :

장누벨이 설계한 리움의 현대 미술관은 오픈플랜(Open plan)이지만 계획상 벽을 양적으로 유도해서 룸(Room) 형식의 공간으로 부분별 파티션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인 벽의 사례이다.

우선 관람자가 미술관에 방문했을 때 전시물을 어떻게 감상하느냐와 전시물과 감상자의 거리에 의한 행동패턴으로 미술관 단위공간의 물리적 조건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를 가설로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벽을 이용한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전시공간에서 물리적 치수로 인한 다양한 전개상의 변화는 단위 공간의 벽과 개구부의 관계로서 특히 벽의 길이와 개구부의 합계는 전체 벽의 길이가 된다.

벽의 길이가 길수록 전시가 가능한 벽면이 많아지고 개구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시 벽면이 적어진다. 그림 7과 같이 개구부나 열린 벽이 많이 구성될 때에는 전시 벽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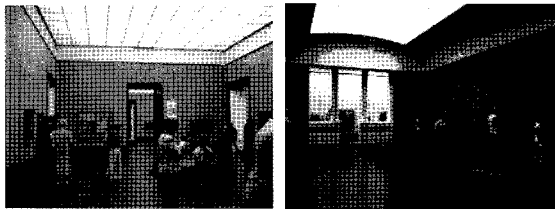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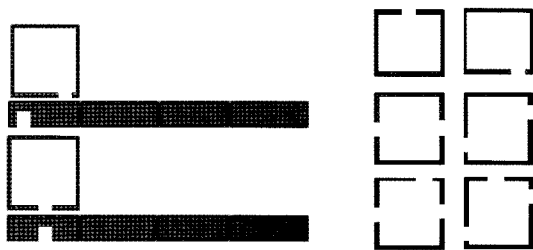


그림 7. Alte Nationalgalerie

그러나 개구부의 위치는 같은 형태와 크기를 갖더라도 활용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개구부의 개수는 1~3개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공간의 형성상의 다른 조합방식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림 8은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벽의 전개방식이 달라지고 a)는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b)는 개구부의 개수 및 구성상의 위치에 따라 다양함을 보여준다.



a) 개구부의 위치와 입면 b) 개구부 개수
그림 8. 개구부에 따른 공간의 변화

그림 9는 벽면의 형태에서 물리적으로 같은 길이를 가지는 벽이지만 구성에 따라 25m의 벽면 길이가 a)는 2개의 연결된 벽과 b)는 5면의 연결 또는 분절된 벽으로 구분되어짐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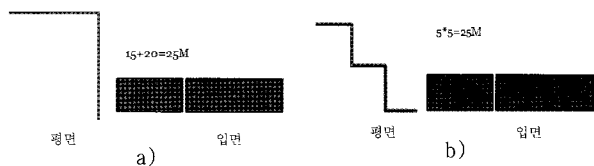


그림 9. 연결과 분절에 따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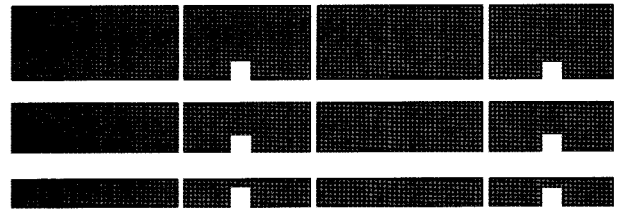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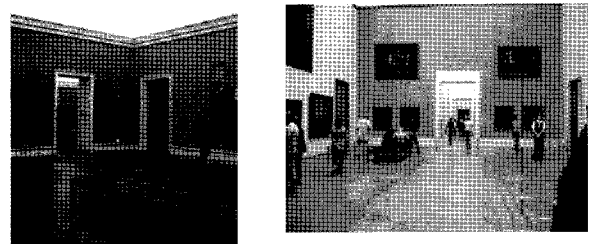


그림 10. 벽의 높이에 따른 전개

위의 그림 10은 벽의 높이에 따라 느껴지는 공간감이나 물리량 또한 다름을 보여주며 이는 높이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밀도가 달라지며 예로서 노이에피나코텍과 알테피나코텍의 전시공간에서 느껴지는 작품의 감상환경의 차이 같은 것이다.(그림 11 참고)



a) 노이에피나코텍 b) 알테피나코텍
그림 11. 벽의 높이에 따른 전개의 예

그림 12에서는 같은 면적의 단위공간이라도 공간형태의 비율에 의한 차이로 다른 벽의 전개를 나타낸다. a와 b는 같은 180㎡ 공간인데 a는 18m×10m 가로세로의 비율로 차이가 있고 벽길이는 길다. b는 15m×12m로 비례상 안정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지만 벽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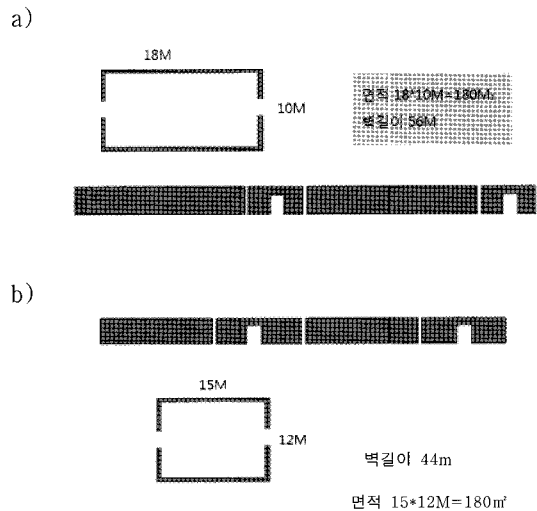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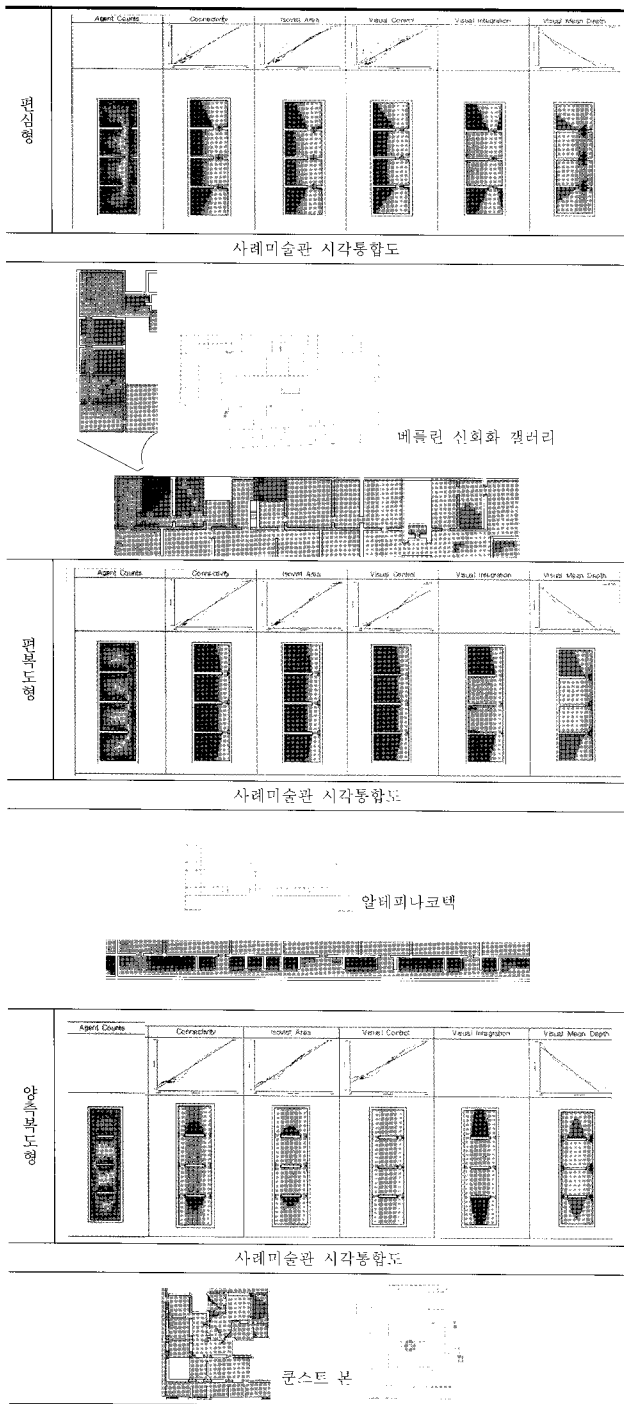


그림 12. 비율에 따른 공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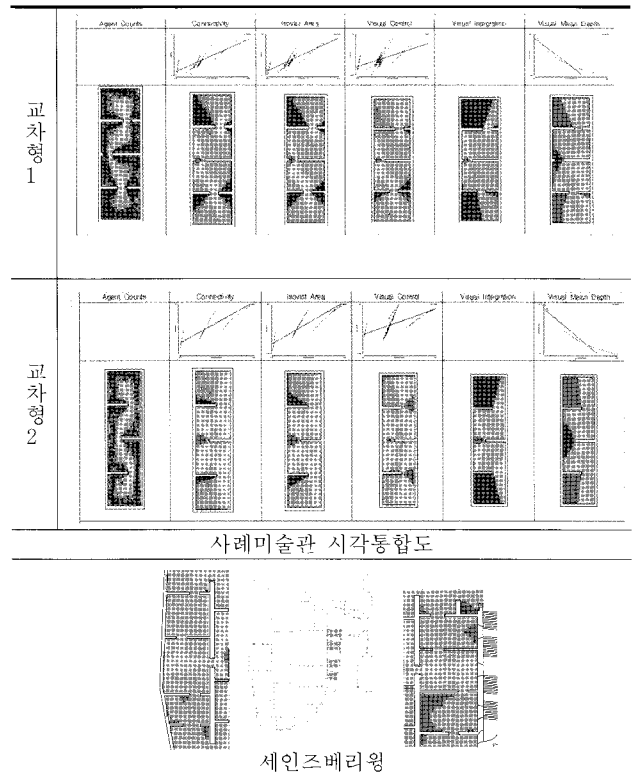
형2의 유형이 나타나며 공간이 연결되는 부분이 시각적 통합도가 높다.

표 5. 유형별 시각분석-2



편심형과 편복도형, 양측복도형에서는 각각 베를린 신회화 갤러리, 알데피나코텍, 쿤스트 본미술관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차형1, 2은 세인트베리윙이 있다.

표 6. 유형별 시각분석-3



이상의 시각분석과 앞의 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벽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먼저 물리량에 의한 벽의 전개 내용이다.

첫째, 단위평면의 물리량에 따른 벽의 전개 방식은 반드시 길어야 좋은 것이 아니다. 이는 평면 형태로는 교차형의 유형으로 유도되어 긴 벽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독립된 실의 연속적 연출로 단위공간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벽면이지만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분절 및 연속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벽 길이의 길고 짧음이 대조를 이루는 공간과 분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다른 전개 양상을 띤다.

(2) 시각구조에 의한 벽면 전개는 통합도나 연결도가 높은 조합일수록 시각정보량이 많아지며 벽의 구성에 따라 전시 홀이나 매개 홀로 이루어진다. 벽의 전개로 시각축이 긴 곳은 공간이 연속적이며 양 끝점에 있는 전시벽면은 시각적으로 유의미한 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벽은 반복이나 상징성을 가지며 감상하는 집중의 전개 방식을 띤다.

(3) 공간 조합에 따른 벽의 전개는 상징적이고 주목성을 갖는 벽의 전개와 물리적 치수상으로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연속된 벽의 전개를 말한다. 또한 개구부가 많고 분절이 많이 된 벽은 어수선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균질의 단위공간이라도 공간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공간구성에 따른 벽의 전개는 앞에서 다룬 유형이 어떻게 그룹핑 되느냐에 따른 정성적분석의 잣대를 가진 벽에 대한 평가로서의 전개방식이며, 공간적으로는 주변의 적절한 경계를 가지며 개방형의 공간이라도 주변의

